

영산강 승촌보 개방 '불꽃쇼' ... 관광활성화 기대



22일 오후 '영산강 승촌보 개방행사'가 서구용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 지역주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방 행사의 하나로 야간 조명이 켜진 승촌보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관련기사 8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U대회 4466억원 지방비 '부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를 치르는데 4000억원 가량의 지방비(시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뜰이나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방 재정 건전성 확대를 비롯해 앞으로 4년간 투입될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치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광주U대회 개최에 필요한 적정 사업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실시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필수 시설비를 포함해 전체 사업비의 적정 규모는 8276억원으로 분석됐다. 경기상 신축을 비롯해 대회 인프라 구축에 드는 필수 시설비는 5076억원, 관리 및 운영비는 32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8276억원 가운데 2642억원은 국비, 4466억원만 지방비 그리고 나머지 1168억원만 광주U대회 조직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방비 230억원이 이미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4200억원 가량의 지방비가 더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 KDI, 사업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해보니
내년부터 4년간 본격 투입 ... 재정악화 우려
국고 지원·조직위 자체수입 확대 방안 필요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최종 예산 확정과 국고 지원 범위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4년간 매년 900억~1000억원 가량의 지방비 소요는 불가피한 셈이다. 한해 세입이 1조1200억원(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규모 2조50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수준인 47.5%에 불과한 광주시로서는 이 같은 지방비 부담은

결국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 운용은 어느 한 곳에 지출하려면 다른 한 곳의 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하는 구조인 만큼 사회 복지와 건설, 교통 등 다른 분야에 쓰여야 할 예산이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휘장판매와 옥외광고 등을 통한 광주U대회 조직위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 등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의학의 모든 것 체험하세요

장흥 천관산서 28일 통합의학박람회 개막

명익들 서양의학·한방·대체요법 무료 상담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 등을 접목시킨 '통합의학'을 주제로 한 '2011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28일 개막된다. 전남도는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장흥군 관산을 천관산 일대에서 '2010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그린 건강, 인간중심 웰스케이프'라는 주제로 서양의학과 한의학, 통합의학의 다양한 정보와 체험행사가 열린다.

■ 통합의학 박람회 명의·명사 초청 강연

Table with 4 columns: 일자, 시간, 성명, 강의주제. It lists various speakers and their topics for the integrated medicine symposium.

* 장소: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장 내 학술관

주제관에서는 서양 의학과, 한의학과, 통합의학과, 생물자원연구관, 미래 의학과 등을 마련해 각 의학체계별 원리와 기능을 설명하고 질병예방, 질병치료, 건강증진, 어린이 체험존 등을 포함한 체험관에서는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

또 천관산 등산 코스에서는 편백나무 족욕체험과 녹색성장 이동체험 행사 등도 펼쳐진다. 정남진 장흥 국제페스티벌을 비롯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건강체조 시연회, 어린이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숲 치유 프로그램 등도 부대행사로 다양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는 분야별 명의와 전문가의 무료 진단과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표 참조>

이외 국내·외 통합의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국제학술포럼도 개최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수익성 강화 지원법 개정 추진

민주 유선호의원 발의

F1(포뮬러원) 대회조직위원회가 수익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하 F1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15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의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F1대회 지원법'은 대회운영 기업인 '카보' 위주로 대회 관련 수익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대회 이후 대회 총괄 추진 주체가 F1대회조직위로 바뀌었으나 F1지원법은 그에 맞춰 아직 개정되지 못해 F1대회조직위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F1대회조직위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과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자금조성 재원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수입금 중 일부를 F1대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개인으로부터 출연·보조금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F1지원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F1대회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치세, 관세 등에 대한 감면규정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F1대회도 다른 국제행사지원법과 유

사한 수준의 지원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Cartoon titled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It depicts a man in a suit looking at a large pile of money, with a speech bubble saying '절대 질수없는 선거됐다' (It was an election that could never be lost).

Large advertisement for Fuji Xerox. It features the text '11년 연속 복사기 부문 고객만족도 1위 기념 고객감동 이벤트' (11th consecutive year of customer satisfaction 1st place commemorative customer appreciation event). It lists various Xerox mode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regions.